

## 카타르, 심각한 인플레이션 직면

- 최근 중동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고유가와 자국통화의 달러 페그(peg) 등에 따른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중의 하나인 카타르는 2007년 4분기 중 물가상승률이 13.74에 달하는 등 매우 심각한 인플레이션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
- 카타르가 직면하고 있는 가파른 물가 상승에 가장 큰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현재 높은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공급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는 주택임차료 부문임.
- 카타르 정부는 최근 이와 같은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주택임차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임차기간을 최소 2년으로 하여 동 기간 동안 임차료 인상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또한, 지속적인 주택물량 공급 확대를 통해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주택 수급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주택임차료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카타르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급상승하고 있는 곡물가격 및 건설원자재 가격 인바, 카타르의 경우 일반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맥의 가격이 2008. 1. 31 현재 전년대비 약 104.6%가 상승하는 등 생필품 가격의 급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

- 더군다나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고유가로 인하여 카타르를 포함한 중동지역에 풍부한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어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미국이 자국의 경제 침체를 회피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함에 따라, 아직까지 달러 페그제를 고수하고 있는 카타르로서는 이것이 바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곡물 및 원자재 등에 대한 수입물가 상승으로 직결되어 더욱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최근 카타르 재무장관은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차원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겠지만 2008년도 중 이러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해소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고 있으며, 카타르 정부의 정책 목표는 최대한 현재 수준 이상으로 물가가 상승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이라고 밝혔음.

【두바이사무소 제공】